

비너스 윌리엄스(7위·미국)가 윌블던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비너스는 6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 올잉글랜드를...

단식, 언니 우승, 동생 준우승 복식, 자매가 대회 3번째 우승



페예노르트 베어벡 감독 "이천수 떠나라"

새 공격수 토미슨 영입따라 현지 언론들 "사실상 방출"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에서 한 시즌을 뒀던 이천수(27)가 사실상 팀에서 방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유력지 '알헤메네 다흐블라드'는 6일(한국시간) "이번 시즌 자취방을 잡...

다. 베어벡 감독은 페예노르트 사령탑으로 부임한 뒤 트벤테에서 뛰던 미드필더 야마디에 이어 최근 덴마크 국가대표 공격수 토미슨을 영입하는 등 새 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팀 내 입지가 좁아진 이천수의 경우 구단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K-리그 팀에 이적할 것을 제의하는 등 일찌감치 전직 외로 분류한 분위기다. 페예노르트는 새 시즌 대비를 위해 5일 베어벡 감독 체제 하에서 첫 팀 훈련을 가졌다. 이천수는 지난 5월 말 한국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뒤 재활훈련 중이며, 팀 합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윌블던 테니스 '흑진주 자매'의 날

비너스, 서리나 2-0 제압 대회 통산 5번째 정상올라

2000년과 2001년, 2005년과 지난해에 이어 개인 통산 5번째로 윌블던을 제패한 비너스는 그랜드슬램 대회에서는 통산 7승째를 거뒀다.

비너스는 아직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는 우승이 없고 US오픈에서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윌블던 단식에서 5년 우승한 여자선수는 비너스가 10번째인데 대회 성격이 최근과 같았던 40년 동안에는 마르타나 나브라틸로바, 슈테피 그라프에 이어 세 번째로 윌블던을 5년 제패한 선수가 됐다.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은 나브라틸로바의 9회다. 2002년과 2003년 결승에서 서리나에 져 준우승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버리게 된 비너스는 그간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는 동생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2002년 프랑스오픈부터 2003년 윌블던까지는 5개 대회 연속 서리나에 맞혀 준우승에 머물기도 했을 정도였다.

경기 시작과 함께 비너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뺏겨 3분 만에 게임스코어 2-0으로 서리나가 앞서갈 때만 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생의 우세가 예상됐다. 0-2로 뒤지던 비너스는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또 0-30으로 끌려가 실거은 승부가 우려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침착하게 따라붙으며 1-2로 추격의 발판을 놓은 비너스는 3-4로 뒤진 상황에서 서리나의 서브 게임을 뺏으며 승부에 균형을 맞췄다. 결국 첫 세트를 7-5로 따낸 비너스는 2세트에서도 좋은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게임스코어 3-2로 앞선 상황에서 두 차례나 브레이크포인트를 잡았지만 결국 게임을 따내지 못한 비너스는 5-4로 앞선 10번째 게임에서 서리나의 서브 게임을 따내 승부를 갈랐다.

비너스는 이날 최고시속 208km의 강서브를 넣으며 윌블던 대회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윌리엄스 조는 이어 열린 남자복식 결승이 끝난 뒤 여자복식에서 한 조 결승에 나서 이번엔 우승컵을 함께 들어올렸다. 윌리



6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 올잉글랜드를 끝낸 윌블던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자매대결을 펼친 끝에 2-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한 비너스(왼쪽) 윌리엄스를 동생 서리나 윌리엄스가 환호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엄스 조는 리사 레이몬드(미국)-사만다 스톨서(호주) 조를 2-0(6-2 6-2)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다.

윌리엄스 자매가 메이저대회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윌블던에서는 2000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비

너스는 2000년, 서리나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윌블던에서 단복식을 석권했다.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른 비너스는 단식 우승상금 75만파운드, 복식 우승상금의 절반인 11만5천파운드를 합해 총 86만5천파운드(한화 약 18억원)를 한꺼번에 손에 넣게 됐

다. 남자복식에서는 대니얼 네스터(캐나다)-네나드 지몬치치(세르비아) 조가 요나스 비요크만(스웨덴)-케빈 울리엠티(짐바브웨) 조를 3-1(7-6(12) 6(3)-7 6-3 6-3)로 꺾고 우승했다.

금호생명 10전 전승... 리그 2연패

여자프로농구 퓨처스리그

여자프로농구 구리 금호생명이 신인과 비주전 선수들이 출전하는 2008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퓨처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생명은 6일 오후 제주 구좌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천안 국민은행과 10라운드 경기에서 조은주(27점)의 맹활약을 앞세워 96-63으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금호생명은 10전 전승으로 우승을 확정하며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퓨

처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퓨처스리그 사상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한 팀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이 대회에서 단 1승(9패)만을 챙기는 부진을 보이며 대회를 마감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여 전반을 48-26으로 앞선 채 끝내며 기선을 잡은 금호생명은 후반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30점 안팎의 리드를 지켜내 완승을 거뒀다. 금호생명 감독 마리아 브라운도 3점슛 4개를 쏘 모두 성공시키는 등 14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한국여자하키 독일과 무승부

여자하키 대표팀이 독일 4개국대회에서 개최국 독일과 비겼다.

유력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5일(한국시간) 밤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풀리그 독일(3위)과 경기에서 2-2로 비겼다고 선수단이 6일 알렸다. 전반에 먼저 두 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 7분 김미선(KT)의 필드골과 후반 28분 김성희(아산시청)의 페널티코너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한국은 6일 저녁에는 인도(13위)와 마지막 3차전을 갖는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독일, 미국(11위), 인도가 출전해 풀리그로 순위를 가린다.

7월(월) ▲2008 PGA AT&T 내셔널 FR(04:00-SBS골프·SBS스포츠) ▲2008 메이저리그(보스턴: 뉴욕Y)(08:55-XSPORTS) ▲PABA 플라이급 타이틀매치(14:00-MBC ESPN) 8월(화) ▲2008 메이저리그(미네소타: 보스턴)(07:55-XSPORT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hong, Ilgong, Sangwond, Daehong, Geombu, A+, and Hanil.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